

COP26 의장, “COP26 기후정상회의는 ‘깨지기 쉬운 승리’ ”

2022.01.25.자 BBC 매튜 맥그랫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글래스고) 의장인 알록 샤르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최종 합의가 “시들어가는 포도송이 꼴”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샤르마는 이번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도달한 합의가 “부서지기 쉬운 승리”였다고 말하면서, 내어놓은 공약이 올해 당장 실행되지 않으면 지구 온도를 억제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기 영화 “Don't Look Up”의 대사를 인용,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평가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2021년 11월에 열린 COP26 기후정상회의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합의가 타결되면서 막을 내렸다. 이 합의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최악의 화석 연료인 석탄 감축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UN 기후 협정이었다. 다만 이 합의된 약

속은 과학자들이 지구를 온난화 위험으로부터 그나마 버텨낼 수 있다고 보는 기온 상승임계값인 1.5°C 이하로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COP26이 열린 지 12주 후가 되는 날, 알록 샤르마는 런던에서 열린 Chatham House 행사에서 처음으로 유엔 기후회의 관련 연설을 했다. 샤르마의 임기는 금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까지이다. 그는 연설에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와해된 국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하면서, 글래스고에서 국가들은 금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 때까지 2030년을 향한 새롭고 개선된 탄소 감축 계획을 들고 오기로 합의했고, 모든 국가가 지구 온난화를 1.5°C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각자 더욱 노력해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샤르마는 또한 최악의 오염원인 화석연료 퇴치를 위해 글래스고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 팀과 제가 석탄화력발전을 역사의 흐름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우리가 COP 합의문에 ‘석탄 퇴출’이라는 단어를 결코 넣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신 COP26에 참석한 모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지도자들이 올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글래스고에서의 성과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샤르마는 청중에게 “우리가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합의는 포도나무에서 시들어 가는 포도송이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떤 위험도 완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에 구축된 신뢰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1.5°C 목표는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주최국인 영국의 대표에게 주어진 COP 의장으로서의 임기 동안 저의 절대적인 목표는 실천입니다.”

샤르마는 올해의 4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열거했는데, 그중 첫째가 국가들이 탄소 감축 조치 강화에 동참토록 하는 일이다. 특히 G20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바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토록 하고 손실 및 피해 문제를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돈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금년 11월 회의에서 부유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2020년부터 매년 약속한 1,000억 달러 투입이 마침내 이뤄질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샤르마는 연설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COP26에서 체결된 ‘남아공 딜 (South African deal)’ 을 언급했다. 그는 영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남아공의 탈석탄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 접근법이 다른 사례에도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공에 대해 하는 것처럼,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일은 선진국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더욱 늘어야 할 것입니다.”